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응원봉 든 이대녀 vs 빨간봉 든 이대남, 사랑하면 안 될까

<20대 여성>

<20대 남성>

오동진
영화평론가



영화드라마 속 남녀, 보수·진보 구도

연설문 작가 주인공 '스피치리스' 정치와 사랑 양립 가능한지 묘사

경찰 가족 다룬 미드 '블루 블러드' 오누이 형사·검사, 매사 티격태격

K드라마 '내 연애의 모든 것' 선 보수·진보 '의원 커플' 특하면 대립

별인다. 둘의 쟁점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침 식사 혹은 저녁 만찬으로까지 옮겨 간다. 가족 내 남자, 특히 대니는 세상을 논리대로만 살아 갈 수는 없다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내세우곤 한다. 우리 전정을 뚫고 지방검사 자리까지 오른 동생 에린은 그런 오빠가 당연히 못마땅하다. 이 둘의 말 싸움, 격렬한 남녀 노선 싸움의 중재자는 아버지 프랭크이다. 종종 대니의 아내 린다(에이미 갈스)가 나서지만 간호사였던 그녀는 환자 후송 도중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만다(시즌7). 남녀 문제에 있어 선진국처럼 보이는 미국 역시, 이 시리즈가 진행됐던 14년 동안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루 블러드'는 상당히 보수세가 강한 분위기의 작품이지만 가족 내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만큼 민감한 이슈라는 얘기다.

한국에서는 쉽게 이런 남녀 캐릭터의 대립 구도를 보여 주는 드라마를 기획하지 못한다. 지난 10여 년간 거의 유일했던 작품이 2013년 SBS가 방영했던 '내 연애의 모든 것'이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중반을 넘어서면서 국정의 난맥상이 서서히 드러나던 때였다. 이듬해 세월호 사고가 터졌다. 드라마 '내 연애의 모든 것'은 보수당(당시의 한나라당을 비유)의 국회의원, 남자 김수영(신하균)과 진보적 정당(당시의 통합민주당을 비유)의 국회의원, 여자 노민영(이민정)이 비밀연애를 시작하지만 국회에서나 사생활에서나 목에 핏대를 세



1995년 영화 '대통령의 연인(The American President)'은 '보수 남자-진보 여자'의 얘기를 다뤘다.

<영화사 제공>

우며 격렬하게 싸운다는 이야기다. 이 드라마는 현실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높아지면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비판에 휩싸였고 결국 평균 5% 안팎의 저조한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도 남자는 보수의 길을 걷고 여자는 진보적 태도를 지향한다는 경향성이 고착화되고 있다. 당연히 이들 영화나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한남동 탄핵 찬반 시위의 진영도 응원봉을 든 2030 여성들과 빨간 신호봉을

흔들어 대는 20대 남성으로 갈리고 있다. 2030 여성과 20대 남성들의,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정서의 수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 가고 있어 기성 세대는 이를 매우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의 젊은 남녀는 서로 연애를 하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으려 한다. 당연히 결혼을 기피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화이트 칼라층의 진보적 여성과 블루 칼라층의 보수적 남성들의 대립은 사회 문제이자 국가적 문제가 됐다.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이 가졌던 기획의도는 그렇게 해서라도 정치적 진영이 다른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것을 지양해 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기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닌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민주당의 전통 가문인 케네디 가의 마리아 슈라이버(존 F 케네디의 누이동생 유니스 슈라이버의 딸, 외조카이다)의 결혼도 있긴 했었다.

최근의 할리우드 영화는 남녀간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공화당-민주당 식의 진영 개념을 아예 도입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내는 셈이라 보기 때문이다. 다만 '좀 엉뚱한 남자 vs 아주 성공한 똑똑한 여자'의 구도가 대체다. 2019년 영화 '롱 샷'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출중한 능력의 외교관 여성 샬롯(사를리츠 테론)과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남자 프레드(세스 로건)의 얘기를 다룬 정치 로맨스이다. '롱 샷'처럼 일부러라도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결국 이념과 정치적 태도의 문제도 구체적인 삶의 관계를 통해 조금씩 좁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서로를 존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대중문화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젊은이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화와 드라마의 시대적 소명이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오동진 연합뉴스·YTN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이후 영화주간지 'FILM2.0' 창간, '씨네버스' 편집장을 역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컨텐츠필름마켓 위원장을 지냈다.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등 평론서와 에세이 '영화, 그곳에 가고 싶다'를 썼다.



정치 로맨스 영화 '롱 샷'.

<영화사 제공>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